

장수군, 일상감사 21억 절감

절감 예산 일자리 창출 등에 재투자… 부실공사 사전 예방 성과

장수군은 지난 한 해 동안 공사·용역·물품구매 및 설계변경 등 총 279 건 849억원에 대해 일상감사를 통해 2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일상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장수군 일상감사 및 지방계약법·원가심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장수군 기획조정실에서 사업의 적법성·타당성을 점검·심사하는 예비적 감사로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사업의원·기획조정·공법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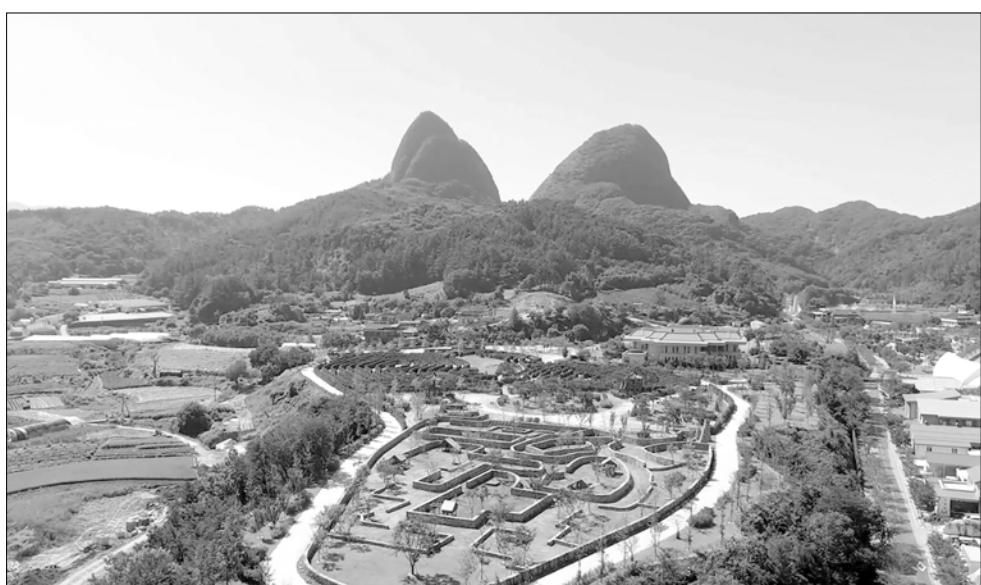
택, 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심사했다. 이 심사는 1억 원 이상(국·도비 포함) 종합사업, 3억 원 이상 민간보조 사업과 설계변경 타당성 대상인 5억 원 이상 공사의 10% 변경, 단일공정의 2천만원 이상 변경에 대한 검사 등이 그 대상이다.

일상감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주요현안사업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재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장수군의 건정한 재정운영과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과를 거뒀다.

이 같은 성과는 지금까지 축적된 일상감사 노하우와 면밀한 서류검토 및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적용 등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한 결과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일상감사 검토 기간을 단축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장수군의 건정한 재정운영과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은 17일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센티브 지원은 1월부터 추진하여 올해 예산 1,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한다.

진안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진안군, 예산 1000만원 소진 때까지 진행… 내국인 20인·외국인 10인 이상 시

진안군은 17일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센티브 지원은 1월부터 추진하여 올해 예산 1,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당일 관광의 경우, 내국인 20인 이상 시 1인당 5,000원, 외국인 10인 이상 시 1인당 10,000원을 지원한다.

숙박 관광(1박당)의 경우 내국인 20인 이상 시 1인당 20,000원, 외국인 10인 이상 시 1인당 25,000원, 수학여행 단 20인 이상 시 1인당 15,000원을 지

원한다.

단,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마이산 벚꽃성수기(4월 10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방문하는 단체관광객은 인센티브 지원에서 제외한다.

지원조건은 당일관광의 경우, 유료 관광지 1곳, 관내 음식업소 1식 이상을 이용해야 하며 숙박관련의 경우에는 유료관광지 2곳, 관내 음식업소 2식 이상 관내 숙박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인센티브 지원을 희망하는 여행사는 진안군 방문 7일전 사전예약서와 관

광일정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을 군청 관광개발사업소에 사전 통보해 협의해야 한다.

인센티브 지원은 방문 완료일 기준 15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자급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억월 1달 이내에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적극적인 관광마케팅으로 진안군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사는 곳은 달라도 우리는 친구'

무주·기장군 청소년들 무주서 만나

자매결연을 맺고 20년 간 돈독한 우의를 다져온 무주와 부산 기장군 지역 청소년들이 17일 무주에서 만났다.

두 지역 청소년 60여 명은 첫 날 태권도원을 견학하고 반디랜드에서 눈썰매를 타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18일에는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그들의 눈썰매를 따며 겨울을 무주를 만끽할 예정이다.

기장군 청소년들은 "부산에는 눈이 거의 오지 않는데 스카를 탈 생각을 하니 엄청 기대 된다"라며 "태권도 박물관도 가보고 천문화학관에서 본 별도 오래 기억에 남

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무주군 청소년들은 "처음엔 서먹서먹했는데 놀면서 많이 친해졌다"라며 "여름에는 부산에도 꼭 가보고 싶다"라고 전했다.

지난 99년 시작된 무주·기장군 간 청소년 수련활동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호평을 받고 있다.

무주군과 기장군은 1996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로 △재난분야 업무협약 체결과 농업 행정·민간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매아리

무주군, 농·식품가공창업반 교육

무주군은 농식품가공창업(기초반)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농·식품가공창업(심화반)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6년과 2017년 1, 2차에 걸쳐 교육을 받은 197명이 20명씩 순차적으로 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습식기공(즙/잼)과 건식기공(분말/환/과립) 등 농가들이 원하는 기공 실습교육을 신청 받아 진행한다.

교육은 호서대학교 내추럴조이스 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전문연구원들이 맡아 할 예정으로, 습식기공 분야에서는 쟁과 퓨레, 잼 등을 직접 가공하는 것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건식기공 분야에서는 건조기를 이용한 건조기공실무와 분말기공실무, 과립/제환 기공실무 등을 실습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백운면, 마을좌담회 진행

진안군 백운면 송준섭 면장은 새해 들어 주민과 소통 행정을 펼치고 있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송 면장은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33개 전 마을을 대상으로 좌담회를 갖고 있다.

이번 좌담회는 군정을 홍보하고 주민 어로사항을 듣는 형식적인 자리가 아닌 주민과 정답을 나누며 마음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백운면은 주민들과 주고받은 의견을 면밀히 검토 후 군과 면 행정 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경찰서, 치안현장 활력전담팀 간담회 개최

무주경찰서(서장 윤종섭)는 17일, 2차 '치안현장 활력을 위한 전담팀(T/F) 간담회'를 가졌다.

일선 경찰들의 어로사항 개선을 통해 서 직무민족 향상과 치안활동에 대한 주민체감 인전도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11일 1차 현장 허리 T/F팀 구성 후, 2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직원 상호 존중 문화 확산 △미워인·직원을 위한 사무화 경계선 △합리적인 근무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장택순 T/F팀장은 "앞으로도 T/F팀은 불합리한 조직의 관행과 문화 개선하고 치안 현장의 견을 지속 수렴하여, 일선의 냉소적인 시각이 사라지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서장도 "현장T/F팀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태홍 스포츠 아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태홍

서바이벌

ATV / 바기카

래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옹포리 485-2)

대표 약력

일피인 스키 및 점프선수 활동

전국 선수권 대회(금메달)

국제대회 디수 참가 및 우승

동계대회 국기대표 출전

국기대표 코치 역임

일본 시설로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NSL1/NSL2) 취득

용글치치 요일 지각증 취득

래프팅 기어드 지각 취득

수상 인명구조요원 지각증 취득

현) 김태홍 스포츠 아카데미 대표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베르티 지각 취득